

무쏘·코란도 ‘국민 SUV’ 신화… 토레스 등 전동화 ‘제2 도약’

KG모빌리티 창립 70주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제작사 KG그룹에 인수… 재도약 발판 마련
곽재선 회장, 글로벌 시장개척 주력
‘O100’ 등 다양한 신차 출시 예고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전동화 모빌리티 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954년 설립된 ‘하동환자동차 제작소’에 뿌리를 두고 있는 KG모빌리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제작사다. KG모빌리티는 2022년 11월 KG그룹에 최종 인수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사명변경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든 경험을 ‘가장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에 투영시켰고 이는 새로운 ‘KG 신화’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KG모빌리티의 부활은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토레스를 출시하면서 이뤄졌다. 토레스 출시로 ‘SUV 명가’ 재건의 첫발을 내디뎠다. 2022년 7월 출시된 토레스는 기술적 탄탄함과 우수한 디자인, 가성비를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사전계약 첫날, 기존 액티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

언 모델 첫날 계약 대수의 4배 수준인 1만2000대의 계약 대수를 돌파했다. 또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5만대를 넘어지며 무쏘, 코란도, 티볼리에 이어 전국민적 사랑을 받는 ‘SUV 명작’에 등극했다.

토레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주목받으며 KG모빌리티가 2023년 ‘10억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데 힘을 보탤다. KG모빌리티는 지난해 토레스의 국내외 활약과 더불어 전동 모빌리티 야심작 ‘토레스 EVX’ 출시, 글로벌 맞춤형 마케팅, 생산 효율화 등을 업고 역대 최대 매출(3조7800억원) 달성과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연간 판매량은 내수 6만3345대, 수출 5만3083대 등 총 11만6428대에 달했다. 이는 2014년 7만2011대 해외판매 실적을 거둔 이후 9년 만에 기록한 해외판매 최대 실적이다.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특히 이같은 성장은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의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도 한몫하고 있다. 곽 회장은 유럽시장 론칭 행사에 직접 참석, 현지 미디어 인터뷰 및 대리점 대표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열정적으로 수출 시장 개척에 앞장섰다.

유럽 22개국 대리점 사장 및 판매 책임자들과 직접 만나 새로운 KG 모빌리티 CI와 기업 비전은 물론 중장기 제품 개발 계획 그리고 수출 전략을 공유했다. 또 부문별 우수 대리점 활동 발표 등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제 KG모빌리티는 지난 2여년간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코리아 넘버원 e-모빌리티 브랜드’라는 새로운 비전

을 선언하며 차별화된 통합 모빌리티 기업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곽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사명변경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소프트웨어 중심차(SDV),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모빌리티 기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KG모빌리티는 내수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차를 내놓는다. KG모빌리티는 올해 상반기 토레스를 기반으로 한 ‘쿠페형 SUV’ 및 코란도 EV 택시를 출시하는 한편 픽업트럭 시장 활황에 맞춰 전동 플랫폼 기반의 픽업트럭 ‘O100’ 등 다양한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특장법인 KG S&C와 전기버스 등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겨냥해 인수한 KGM커머셜, 자사 차량 고객을 케어하기 위한 인증중고차 등을 통해 사업 다각화도 모색하고 있다.

기술적 성장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KG모빌리티는 비야디(BYD), 오토노머스 등과 협력해 운전자 편의와 배터리 안전성을 제공하는 한편 자율주행 모델의 확장도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행보도 남다르다. 사우디아라비아 SNAM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규 시장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종뿐 아니라 토레스 EVX를 생산할 수 있게 됐고, 2026년까지 해외 20만대 판매 목표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KG 모빌리티 곽재선 회장은 지난 2022년 취임사를 통해 “쌍용차를 지속 가능한 회사로 만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전 임직원이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리튬가격 반등… K-양극재, 수익성 ‘청신호’

3개월만에 kg당 100위안대 상승
업계, 안도… ‘실적 개선 가능성’

양극재의 핵심소재인 리튬 가격이 3개월 만에 kg당 100위안대로 상승해 국내 양극재 업계의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기차 수요 회복 여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도 존재하기에 업계는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18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kg당 105.5위안(한화 1만9540원)으로 집계됐다. 리튬이 100위안대에 들어선 것은 올해 들어 이달이 처음이다. 리튬 가격은 지난 2023년 12월 100.5위안(한화 1만8614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며 약 3개월간 kg당 80~90위안대(한화 1만4817원~1만6669원)에 머물렀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좌우하는데,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리튬이다. 양극재에서 리튬의 비중이 높을수록 배터리의 용량은 늘어난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글로벌 탄산리튬 시장은 지난 2023에 88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2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니켈 가격도 소폭 올랐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가 집계한 니켈 가격은 지난 1월 톤당 1만5700달러(한화 2095만원) 선을 기록했으나 지난 15일 기준 1만8000달러(한화 2402만원)선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니켈 또한 양극재의 핵심소재로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를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포항공장 조감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리튬은 지난 2020년~2022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소비 증가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지난 2023년부터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리튬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선 데는 글로벌 광산업체들의 공급 과잉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대 리튬 기업 앨버말은 직원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호주의 코어리튬 기업도 피닉스 광산의 채굴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카디올리튬 역시 리튬 원광 생산량을 줄였다.

양극재 업체들은 원료 매입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의 가격 차이로 인해 수익 변동성이 높다. 통상 3~6개월 전 리튬을 비롯한 원자재를 매입하고 약 2개월의 재고를 확보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리튬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화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업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실제로 양극재 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 광물 가격 급락과 전기차 수요 둔화

본격화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4분기 각각 737억원, 11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엘앤에프 또한 2804억원의 적자를 냈다.

양극재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업계에 우호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재료 투입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리튬 가격이 상승할 때 미리 저렴하게 구매한 광물로 높은 판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레깅 효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다만 광물 가격이 지난해 평균 수준에는 못미쳐 여전히 불안한 기색도 감돌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어 리튬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리튬 가격이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라며 “1분기 실적 회복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2분기부터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항공, 하계 시즌 국제선 공급 확대

코로나 이전 수준 여객 정상화 계획

대한항공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국제선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해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시즌(3월31일~10월26일까지)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대폭 재개한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자사의 2024년 하계 시즌 국제선 여객 공급은 유호 좌석 킬로미터 기준 코로나19 이전의 96%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속적으로 여객 노선 공급을 늘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해 완전 정상화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하계 스케줄 시작에 맞춰 동남아·중국·유럽 4개 도시를 재

운항한다. 4월 24일부터 주 4회 인천~정저우 노선의 운항을 시작한다. 4월 23일부터는 인천~장자제 노선을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중국간 여행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노선에 추가 운항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운항 중인 노선의 편수도 늘린다. 인천~부다페스트(헝가리) 노선은 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인천~방콕 노선은 매일 3회에서 4회로, 인천~마닐라(필리핀) 노선은 매일 2회에서 3회로 증편한다. 인천~발리(인도네시아) 노선은 지난 1월부터 주 9회에서 11회로 확대 운항하고 있다. 인천~댈러스(미국) 노선은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증편한다. /양성운 기자

현대위아, 에코바디스 ESG평가 ‘골드’ 등급

지속가능경영 성과 인정받아

현대위아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대위아는 에코바디스의 ESG 경영 평가에서 ‘골드(Gold)’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175개국, 10만여개 기업의 환경, 노동·인권, 윤리, 조달 성과를 평가하는 글로벌 ESG 기관이다.

현대위아가 획득한 골드 등급은 상위

5% 이내 기업에만 부여된다.

현대위아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RE100’에 가입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 친화기업에 선정된 것도 노동·인권 분야의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양성운 기자

